

2026. 6월 경남교육정책

이슈페이퍼 **지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발행인 이수광

발행일 2026. 6. 30.



경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 학교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지원, 위(Wee)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학생지원 사업은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사업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한편,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저하, 심리·정서적 불안,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부의 자원이나 개별 교사의 노력만으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박상현 외, 2021; 이해영 외, 2011).
- 이와 같은 기존 학생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 12월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중심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FUTURE EDUCATION INSTITUTE

교육정책연구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2-33

055-570-5605 psychy@korea.kr

<https://gnfe.gne.go.kr>

* 본고의 내용은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 「경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탐색」(한미영 외, 2025)의 일부 내용을 요약·소개한 것임.

육부, 2022. 12. 28.).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이다.

- 이후 교육부는 2023년부터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시범 운영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공포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시범 운영 단계를 넘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중앙정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단기간에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 학교 내 협업체계 구축, 업무 조정,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반 마련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경남 지역 16개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 여기서 학생 '맞춤지원'이라는 것은 학생 각각이 서로 다른 문제와 필요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학생 '통합지원'이라는 것은 학생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 과거의 교육복지 사업은 주로 학생에게 부족하거나 결핍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지원하는 성장 모델(growth model)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모델에서는 기존의 사업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철저히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사후적 지원을 넘어 예방적 지원과 학생 개인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최동호, 안해정, 2025).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사업별 지원 체제로 인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학생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 단위'가 아닌 '학생 중심' 운영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다(이길재 외, 2024).



[그림 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

출처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https://studentsupport.kr/content/124.do>)

III 경남교육청 학생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재구조화



- 먼저, 경남교육청의 2025년 학생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비, 체육복 구입비 등의 교육비 지원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위(Wee) 프로젝트 등의 심리·정서 지원,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의 안전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의 사회통합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 29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들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비롯하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복지과, 민주시민교육과, 진로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등 7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학생지원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경남교육청의 29개 학생지원 사업을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면, <표 1>과 같이 5개의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개별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학생지원 체계를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구조화는 기존 학생지원 사업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표 1〉 경남교육청 학생지원 사업의 재구조화

연 번	범 주	사 업 명	소관부서
1	학업·진로 지원	· 기초학력지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 학교 내 대안교실	민주시민교육과
2	심리·정서 지원	· 위(Wee) 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과
3	다문화·특수교육 지원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 탈북학생 교육지원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진로교육과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유아특수교육과
		· 장애학생 인권보호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4	돌봄·안전·건강 지원	· 학업중단예방 · 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 학교폭력예방지원	민주시민교육과
		· 미인정결석학생 지원	초등교육과
		· 아동학대예방 지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5	복지·경제·생활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 다자녀 교육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교육복지과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교육과
		· 사업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 외국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진로교육과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수학여행비 지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체육예술건강과

IV

경남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 경남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6개교이며, 본 사례

분석에서는 이들 학교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정착과 지역 맞춤형 모델의 개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매년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사례 분석에서는 경남 선도학교의 2024년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각 학교의 2025년 사업 운영계획서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박병영, 권소현, 2025).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내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하 통합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자원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 공동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지수 외, 2025).
- 이에 본 사례 분석에서는 각 학교의 통합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학교 구성원 간 협력,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중심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교의 인력 배치와 규모, 지역적 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운영상의 강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2 사례 분석 결과

- 경남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의 체계 구축 및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문인력 협력형, 전 교직원 참여형, 교원 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별 대표 사례와 주요 특징은 다음 <표 2>와 같다.
 - 전문인력 협력형(유형 I)은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문인력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통합지원팀의 운영이 일부 핵심 실무진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주요 인력이 부재하거나 업무가 과중한 경우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전 교직원 참여형(유형 II)은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담임교사 등 다양한 교직원이 통합지원팀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여러 전문 영역의 교직원이 함께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다학제적 협력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교육복지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상담이나 치료 영역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복지 영역의 지원과 외부 자원 연계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교원 주도형(유형 III)은 주로 전문인력의 배치가 제한적인 소규모 학교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학교장과 교원이 통합지원팀의 운영과 사례 지원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학교장과 교직원의 높은 관심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밀착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발굴, 사례 관리, 행정 업무, 외부 기관 연계 등을 교원이 직접 담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이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표 2〉 경남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유형 및 운영 특징

구분	전문인력 협력형(유형 I)	전 교직원 참여형(유형 II)	교원 주도형(유형 III)
대표 학교	· 김해삼성초, 서창중 등	· 대원초, 용남중, 군북고 등	· 용원초, 창선초, 대병중 등
전문인력 배치	· 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전문인력 미배치
학교 특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학교가 많으며, 다학제적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복합위기학생을 지원	· 상담인력은 있으나 복지전담인력이 없는 경우로, 전문상담(교)사가 위기 진단을 맡고 일반 교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	· 전문 인력이 없는 소규모 학교나 읍·면 지역 학교로, 학교 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를 운영
통합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교감, 부장교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4인 중심의 다학제적 협력 및 체계적 외부 연계	· 보건·영양·특수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이 통합지원팀의 필수위원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지원	· 학교 규모가 작아 별도의 팀을 꾸리기보다 전 교직원이 역할을 분담하며, 교무부장 및 담임교사가 학생 발굴부터 행업 실무, 외부연계까지 직접 수행
거버넌스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활발	· 상담 및 치료 중심 외부 연계	· 교육지원청 허브 역할의존도 높음
강점	· 복합 위기 학생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강력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가능	·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전 교직원이 학생 지원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문화 형성 용이	· 소규모 학교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한 밀착형 관찰 가능
단점	·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사례 관리와 외부 연계 업무가 일부 전문인력에게 집중되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전 교직원 참여 체계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 수 있으며, 복지전문가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 전반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음.	· 전문인력이 없어 교원이 학생 발굴부터 행정 실무, 외부연계까지 전담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매우 크고 복지·상담 전문성 보완이 필요함.

■ 이러한 유형별 사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배치 여부, 학교 규모와 지역적 여건, 교직원의 참여 방식,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인력 구성과 규모,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운영 방식을 마련하고,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운영 성과 분석



1 학생맞춤통합지원 만족도 조사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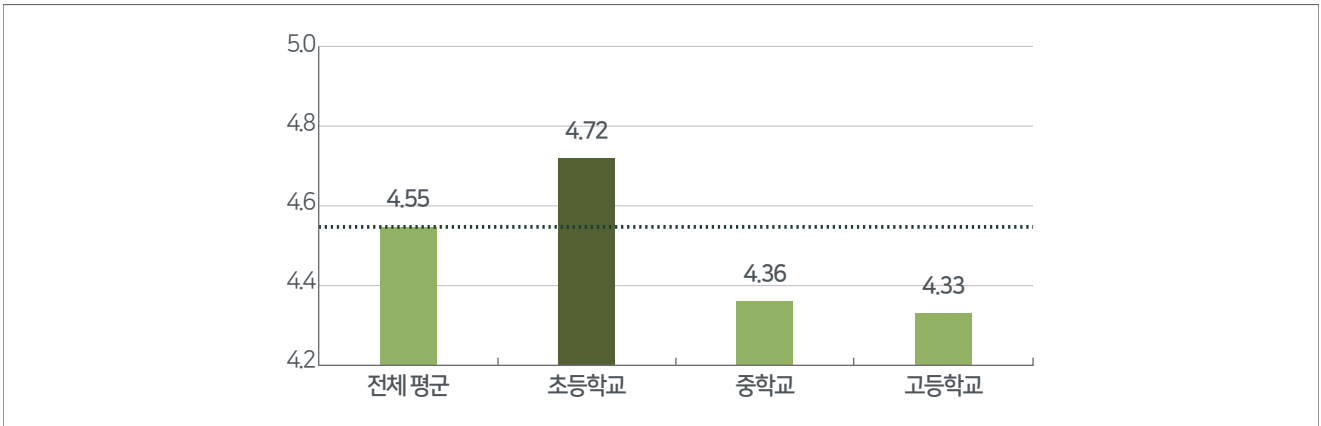
가.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학생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그림 2] 참조),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55점으로 매우 높게

1) 학생맞춤통합지원 만족도 조사는 2024년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한 선도학교의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과 시범 교육(지원)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본고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원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그중 경남 지역 자료를 추출·분석하였다.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4.36점, 고등학교 4.3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조기 발굴과 예방적 지원이 강조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이 학생의 발달 특성과 지원 요구에 비교적 잘 부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학교급별 만족도 차이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 참여 학생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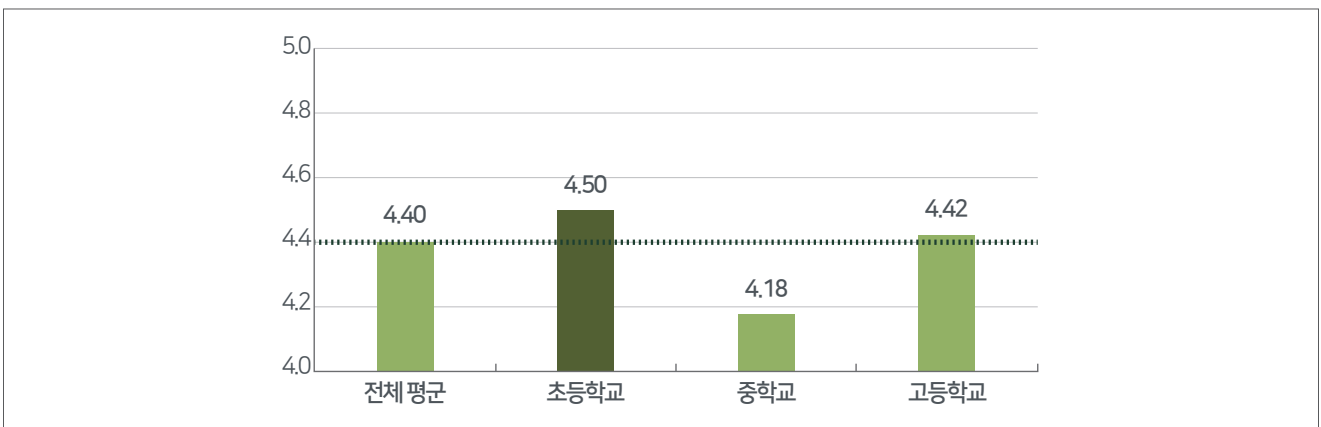


[그림 2]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만족도(학생)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효과성 인식

■ 교직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효과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그림 3] 참조),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4.4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4.42점, 중학교 4.18점 순으로 나타났다.
- 앞서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초등학교 교직원의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초등 단계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에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학생맞춤통합지원 효과성 인식(교직원)

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상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

■ 양적 분석 외에, 선도학교 교직원 및 시범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내용 분석한 결과(<표 3> 참조), ① 관리자의 리더십과 전 교직원의 협조체제 구축, ② 교직원의 인식 개선 및 연수 필요, ③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전문인력 지원, ④ 학부모 참여 및 협력 강화, 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⑥ 정보 공유 및 시스템 구축, ⑦ 가이드북이나 매뉴얼 보급, ⑧ 예산 사용의 자율성 및 사업 운영의 융통성의 8개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련 개선 사항(교직원 및 시범교육(지원)청 관계자)

구분	응답 내용(예)
관리자의 리더십과 전 교직원의 협조체제 구축	<p>“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사람의 업무 부담이 아니라 관리자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각 부서 및 업무담당자 간의 업무조율이 필요한 사업이다. 중복적이거나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p> <p>“담당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발굴에 힘쓰도록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면 체계 구축 및 실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관리자가 얼마나 신경쓰고 적극적인가가 체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p>
교직원의 인식 개선 및 연수 필요	<p>“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실질적으로 매우 필요한 체계인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는 이를 체계가 아닌 사업으로 인식하는 관리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p> <p>“체계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p>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전문인력 지원	<p>“교사가 발굴부터 지원까지 담당하여 추진하기에는 업무적인 부담이 큼니다. 복지사나 상담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운영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고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습니다.”</p> <p>“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없는 경우 외부연계와 지원을 요청하는 데 한계가 있다.”</p>
학부모 참여 및 협력 강화	<p>“학생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어도 보호자가 상담 및 연계를 거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p> <p>“학부모 동의에 어려움이 크므로 학부모 인식 개선과 홍보 및 연수를 강화하기 바랍니다.”</p>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p>“학교와 지역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p> <p>“유관기관과의 MOU는 지역청에서 체결하여 학교 업무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p>
정보 공유 및 시스템 구축	<p>“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학생의 이력을 관리하는 종합 포털이 있었으면 좋겠다.”</p> <p>“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연결되었으면 합니다.”</p>
가이드북이나 매뉴얼 보급	<p>“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없는 경우 외부연계와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계가 많으므로 교육청-지자체와 연결되는 안내 매뉴얼을 학교에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p> <p>“교내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된 가이드북이나 운영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예산 사용의 자율성 및 사업 운영의 융통성	<p>“통합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위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p> <p>“학교 현장에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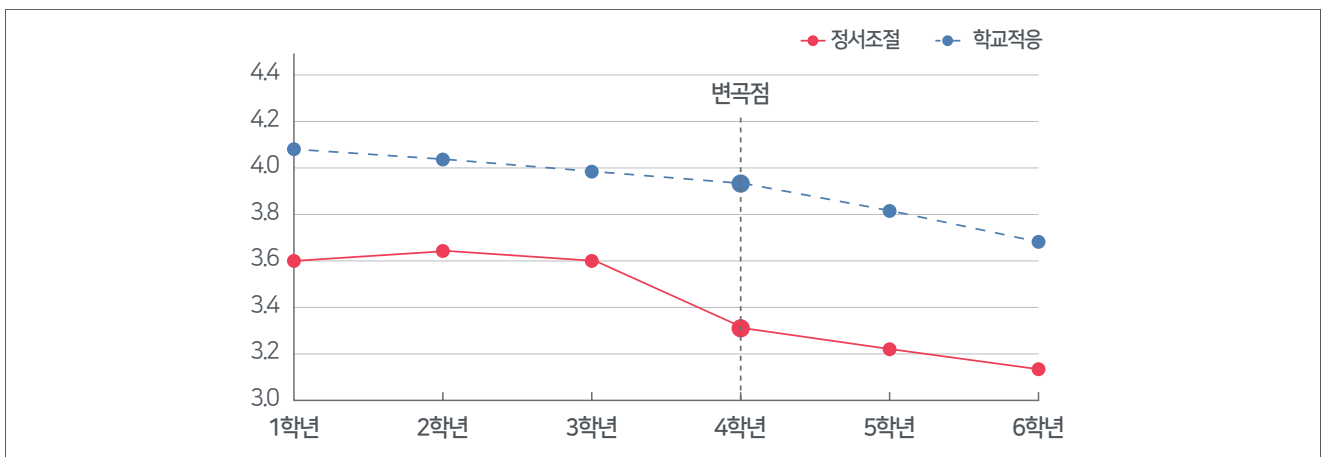
2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²⁾ 분석

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분석

■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중 정서조절과 학교적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4] 참조), 두 영역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학교적응은 1학년 4.08점에서 6학년 3.68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정서조절은 1학년 3.61점에서 3학년 3.60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학년부터 3.31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고, 정서조절은 특히 4학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학년 진입 이전부터 조기 발견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초등학교 학년별 정서조절 및 학교적응 변화 추이

나. 교육지원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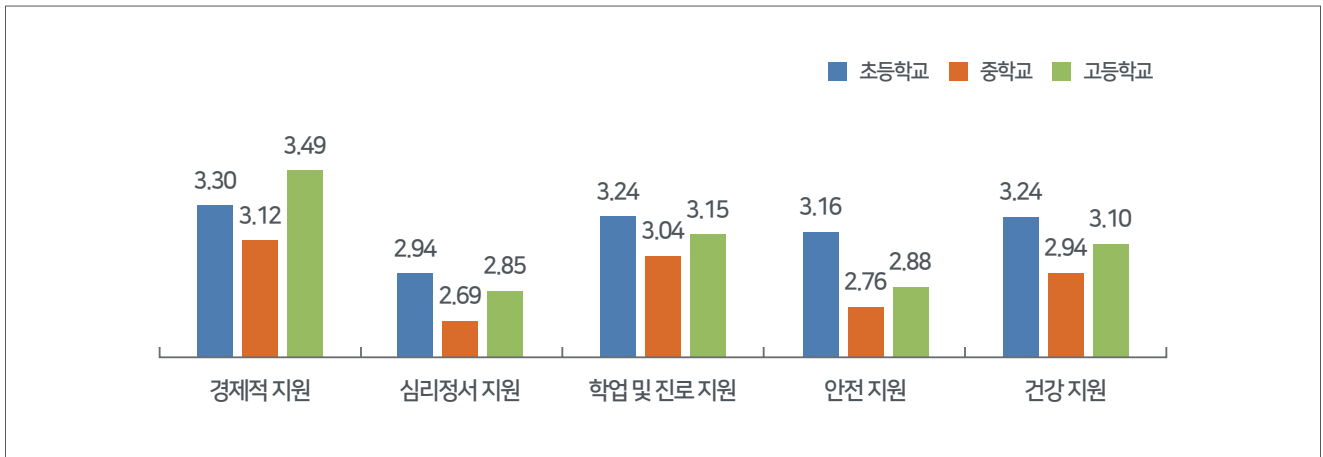
■ 먼저, 학생의 교육지원 요구를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그림 5] 참조), 초등학교는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요구를 보였다.

- 초등학교생은 경제적 지원(3.30)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 및 진로 지원과 건강 지원(각 3.24), 안전 지원(3.16) 순으로 높았다.

- 중학생은 경제적 지원(3.12)이 가장 높았고 심리·정서 지원(2.6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은 경제적 지원이(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학교급 및 지원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학업 및 진로 지원(3.15), 건강 지원 (3.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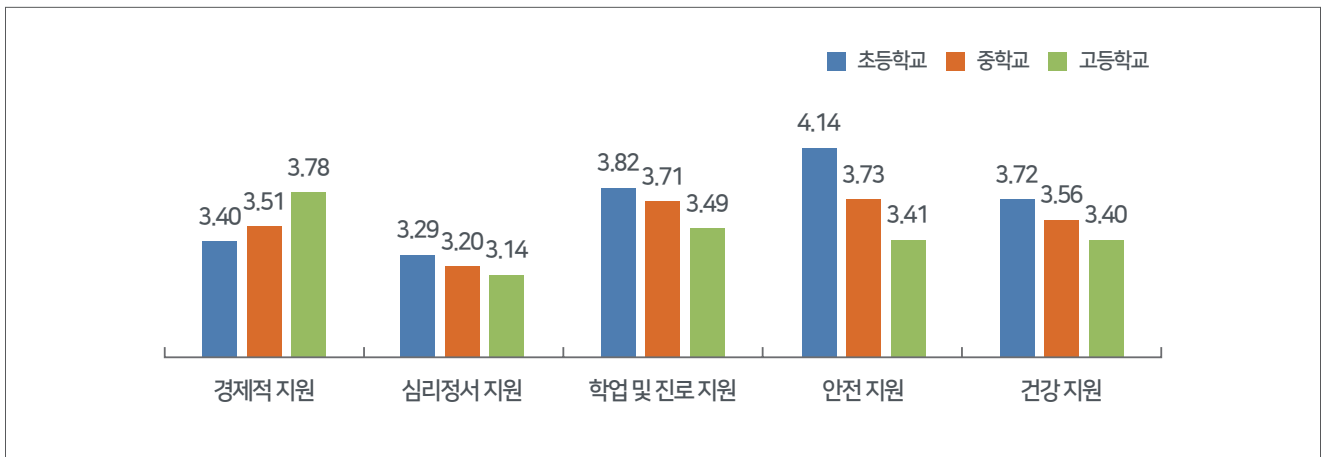
2)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현황과 학생의 성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의 경남 지역 원자료 가운데 학생 사회·정서 지표조사와 선도학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상 교육지원 요구조사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 사회·정서 지표조사에는 경남 학생 총 5,595명(초 3,165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지원 요구조사에는 학생 4,417명과 학부모 4,128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5] 학생의 교육지원 요구 영역별 비교

■ 다음으로, 학부모(보호자)의 교육지원 요구를 살펴본 결과([그림 6] 참조), 모든 학교급과 지원 영역에서 보호자의 요구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초등학교 학부모는 안전 지원(4.1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학업 및 진로 지원(3.82), 건강 지원(3.72)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 학부모는 안전 지원(3.73)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 및 진로 지원(3.71), 건강 지원(3.56), 경제적 지원(3.51) 순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학부모는 경제적 지원(3.78)이 가장 높았고, 학업 및 진로 지원(3.49), 안전 지원(3.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학부모(보호자)의 교육지원 요구 영역별 비교

■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지원 요구가 학교급과 지원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학교급별 요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안전·학업 및 진로·건강 지원을 중심으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학교에서는 안전과 학업 및 진로 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학업 및 진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VI 나가면서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심리·정서, 복지, 안전, 건강, 진로 등 영역별로 분절되어 운영되어 온 학생지원 체계를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정책이다. 정책의 핵심은 개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계하는 학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 경남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사례 분석 결과,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학교 규모와 지역적 여건, 교직원의 참여 방식,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형, 전 교직원 참여형, 교원 주도형 등 다양한 운영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학교에 단일한 운영 모형을 적용하기보다 학교 여건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특정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 교육복지 전문성과 외부 연계 기능의 부족, 교원 업무 과중 등 유형별 한계도 나타난 만큼, 학교의 인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직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효과성 인식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교직원의 협력적 참여 강화, ▲특정 교원에게 집중되는 업무 부담 완화,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의 불균등한 배치 개선,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구조적·운영적 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2차 자료를 활용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졌으며, 정서조절은 특히 4학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심화되기 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기존 학생지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연계·조정하여 통합지원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관찰·발견-통합진단-맞춤형 통합지원-사후관리 및 환류로 이어지는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여 학생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사례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읍·면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상담·의료·법률 분야의 전문가 자문, 사례회의 지원, 유관기관 연계, 행정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학생지원 사업과 정보를 학생 중심으로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은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통합지원팀을 형식적으로 구성하거나 기존 사업을 하나의 명칭 아래 묶는 데 있지 않다. 학교 안팎의 구성원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는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경남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선도학교에서 축적된 다양한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여건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때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혜영 외 (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상현 외 (2021).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
- 교육부 (2022. 12. 28.).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 2025년.
- 최동호, 안해정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학생의 정의적 역량 및 특성, 학생지원 요구 비교 분석. 제216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한국교육학회 2025년 연차학술대회, 111-136.
- 이길재 외 (2024).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고도화 연구.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 박병영, 권소현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이슈페이퍼.
- 김지수 외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국내외 이론 및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